



《초한전 종합분석 - 학술·전략연구 확장판》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의 개념·기원·전략논리·현대적
의미

1999년 중국어 원전 《超限戰》, 중국 정부와 PLA의 공개 문서, 미국 국방부·의회·연구기관 자료, 학술문헌을 교차검증하여 구성한 publication-grade 최종판. 책의 주장과 중국의 공식 군사교리를 구분하고, 초한전을 21세기 국제정치와 전략경쟁의 해석도구로서 비판적으로 재평가한다.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자료 기준일	2026-08-30
편집 메모	한글 폰트(NanumGothic / NanumMyeongjo) 완전 임베드, 표·도표·생성 이미지 삽입, 각 절별 출처 병기

본 보고서는 “초한전 = 중국의 공식 국가교리”라는 단정도, “중국의 모든 비군사적 활동 = 초한전 실행”이라는 포괄적 귀속도 취하지 않는다. 사실(Fact), 저자들의 주장(Authors’ Argument),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Official Doctrine), 연구자의 해석(Analysis), 추론(Inference)을 분리해 서술하며, 특히 번역·수용 과정에서 덧씌워진 과장과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읽는 법: 증거층을 구분하는 5개 태그 4

1. Executive Summary 5

 핵심 판단 5

2. 초한전의 정의 6

 2.1 “超限戰”이라는 표현의 의미 6

 2.2 “무엇이든 허용되는 전쟁”인가? 6

3. 《超限戰》의 역사적 배경 7

 3.1 걸프전과 미국의 RMA가 미친 영향 7

 3.2 세계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 7

4. 차오량과 왕상수이 9

5. 핵심 전략논리 10

 핵심 논리의 압축 10

6. 전쟁 영역의 확장 11

7.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의 결합 12

 주요 수단 분류 13

8. 경제전·금융전 14

 8.1 국제금융시스템, 달러, SWIFT 14

 8.2 제재, 자산동결, 수출통제 14

 8.3 공급망·핵심광물·중국의 대응 15

 8.4 경제전·금융전이 주는 시사점 15

9.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 16

 9.1 SNS·검색엔진·알고리즘의 전략화 17

 9.2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18

10. 법률전·여론전·심리전 19

11. 기존 군사이론과의 비교 20

12. 현대 중국 군사전략과의 관계	21
13. 미중 전략경쟁과 초한전	23
14. 실제 사례 분석	24
14.1 대만해협	24
14.2 남중국해	25
14.3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25
15. 서방의 해석과 오해	26
16. 주요 비판과 한계	27
17. 21세기 초한전의 진화	28
18. 종합 평가 및 결론	29
18.1 가장 중요한 명제 10가지	29
18.2 전략적 혁신성과 한계	29
18.3 한 문장 정의	29
19. 핵심 개념·용어 사전	30
20. 참고문헌 및 주요 1차 자료	31
부록 A. 《超限戰》의 전쟁 방식 목록: 분석적 재구성	32
부록 B. 정책적 함의와 대응 원칙	34
부록 C. 원전·공식교리·현대사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35
부록 D. 주요 1차 자료 해설	36
부록 E. 후속 연구 질문	37
부록 F. 원전 핵심 구절 정밀 독해	38
F.1 “전쟁이 다른 형태와 다른 무대로 다시 태어난다”	38
F.2 “군사/초군사/비군사”의 3분법	38
F.3 “결합은 먼저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이 방법이다”	38
부록 G. 서방 수용사와 번역 프레이밍	39
부록 H.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가	40

읽는 법: 증거층을 구분하는 5개 태그

태그	의미	사용 기준
[사실 Fact]	검증 가능한 사건·문서·제도·통계	출판연도, 공식 문서, 조직, 공개정책, 검증된 사례
[저자 주장 Authors' Argument]	차오량·왕상수이가 《超限戰》에서 제시한 논지	원전의 문제의식, 전쟁관, 수단 분류, 비대칭 논리
[공식 교리 Official Doctrine]	중국 정부·SCIO·PLA 공개문서의 입장	국방백서, 군사전략, 제도·조직 공개자료
[분석 Analysis]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한 연구자의 해석	유사성·차이·전략적 의미·정책 함의
[추론 Inference]	직접 증거 없이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설	가상 시나리오,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연결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超限戰》은 영향력이 큰 전략저작이지만 중앙군사위원회의 작전명령이나 전투교범은 아니다. 동시에, 공식 교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의 문제의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실무적으로는 “직접적 공식성”과 “전략적 영향력”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5][6][8][9]

1. Executive Summary

[사실] 《超限戰》은 1999년 2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차오량(喬良)과 왕상수이(王湘穗)가 출간한 전략저작이다.[1][2] 이 책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준 정밀타격·정보우세·합동전 능력,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에서 드러난 미 해·공군 우위, 그리고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화가 노출한 상호의존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3][4][5]

[저자 주장] 초한전의 핵심은 흔히 대중적으로 이해되듯 “무엇이든 허용되는 무법적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은 유지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과 전장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영역 바깥으로 확장한다는 데 있다. 저자들은 전쟁/비전쟁, 평시/전시, 군사/비군사, 국가/비국가, 국내/국제적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강자는 첨단 군사력으로 우세를 점하더라도 약자는 다른 영역에서 강자의 취약성을 공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1]

[분석] 이 문제의식은 오늘날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분쟁, 정치전, 법률전, 경제안보, 공급망 경쟁, 디지털 플랫폼 경쟁, 인지전 논의와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초한전은 이러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만능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전략경쟁의 여러 측면을 묶어보게 만드는 분석 프레임이며, 설명력과 남용 위험을 함께 가진다.

[공식 교리] 중국의 공개 공식 문서들은 “초한전”을 핵심교리로 내세우지 않는다. 중국의 공식 군사전략은 여전히 적국방어, 정보화·지능화, 군민융합, 해양·우주·사이버 영역 강화, 삼전(여론전·심리전·법률전)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된다.[3][4][5] 따라서 책의 주장과 국가의 공식 입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한전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금융제재, 반도체 수출통제, 희토류 통제,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소셜미디어 조작, 민간 플랫폼과 위성망의 군사화 등은 모두 군사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전략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오늘날 가장 초한전적인 현실은 오히려 “모든 국가가 전쟁과 비전쟁의 사이 공간에서 전략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핵심 판단

- 초한전은 “무한정 폭력”보다 “전쟁수단의 무한한 조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 1999년 당시에는 선구적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그 문제의식 상당 부분이 일반화되었다.
- 중국의 현대 전략개념과 초한전은 중첩되지만 동일하지 않다.
- 서방의 수용 과정에서 번역상의 과장과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했다.
- 금융·기술·공급망·데이터 경쟁은 초한전의 현대판 확장으로 볼 수 있으나, 책의 직접 적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4][5][7][8][9][10][11]

2. 초한전의 정의

2.1 “超限戰”이라는 표현의 의미

[분석] “超限戰(초한전)”은 문자 그대로 보면 ‘한계·제한을 넘어서는 전쟁’이다. “超”는 넘어서는 뜻이고, “限”은 제한·경계·규칙·문턱을 뜻하며, “戰”은 전쟁·투쟁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장 직역에 가까운 의미는 경계를 초월한 전쟁 혹은 제약을 넘는 전쟁이다.

[분석] 영어 번역으로 널리 알려진 Unrestricted Warfare는 가장 보편적인 번역이지만, 영어 독자에게는 “아무 제한도 없는 전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에 비해 War Beyond Limits는 경계 초월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리며, Unbounded Warfare는 전장·수단의 확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지만 기존 용례가 약하다. 결국 세 번역 모두 부분적 타당성을 가지나, 원문의 핵심은 윤리적 무제한성보다 구조적 경계 초월에 있다.

번역어	장점	한계	평가
Unrestricted Warfare	널리 통용됨, 책 인지도와 연결	“무엇이든 허용”으로 오독될 위험	실용적이지만 오해 소지 큼
War Beyond Limits	경계 초월의 의미를 잘 전달	정착된 표준 번역은 아님	의미 전달력 우수
Unbounded Warfare	전장·수단 확장 강조	원전과 완전히 일치하는 관용표현은 아님	보조적 번역으로 유용

2.2 “무엇이든 허용되는 전쟁”인가?

[저자 주장] 《超限戰》에는 매우 도발적인 표현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책을 무규범적 전쟁론으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책 전체를 보면 저자들은 단순한 무법 상태보다 “모든 수단의 결합”과 “비군사 영역의 전략화”에 관심을 둔다. 즉, 핵심은 “규범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기존 규칙만으로는 전략경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다.

[분석] 따라서 초한전은 무제한 폭력의 허가장으로 읽기보다, 전쟁의 범주를 넓히는 급진적 전략사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차이를 놓치면 초한전은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만능 개념으로 확대해석된다.

각주 1. Qiao Liang and Wang Xiangsui, Unrestricted Warfare, FBIS translation, Preface, original pp.1-5; C4I PDF pp.4-7.

각주 2. 같은 책, Chapter 7, original pp.195-222; C4I/FBIS PDF pp.179-199. 저자들은 결합과 beyond-limits를 우선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8][9][17]

3. 《超限戰》의 역사적 배경

초한전과 관련 전략환경의 변화: 1991-2026



도표 1. 1991-2026 전략환경 변화와 초한전의 문제의식

[사실] 초한전은 특정 사건 하나의 산물이 아니라, 1990년대 중국 전략담론을 흔든 여러 충격의 축적 위에서 등장했다. 첫째는 1991년 걸프전이다. 미군은 스텔스, 정밀유도무기, GPS, 위성정찰,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 실시간 정보융합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 전략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라 “미국식 군사혁신(RMA)”의 실증이었다.[3][6]

[사실] 둘째는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전개는 중국이 재래식 해·공군만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훗날 중국이 접근거부/지역거부(A2/AD), 미사일 중심 억제, 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중시하게 된 배경의 하나가 이 위기였다.[3][6]

[사실] 셋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위기는 자본 이동, 통화 급변, 국제금융 네트워크가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한전 저자들이 금융·통화·무역을 전쟁수단의 후보군으로 강조한 배경에는 이러한 체험이 놓여 있다. 다만 저자들이 금융위기를 특정 국가의 ‘의도적 공격’으로 완전히 입증했다기보다, 세계화된 금융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신중하다.[1][10][20]

3.1 걸프전과 미국의 RMA가 미친 영향

[분석] 걸프전은 “미국을 미국식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통적 군사력의 양적 증강이나 정면승부만으로는 기술적으로 우세한 강대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초한전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미국의 전쟁 양식을 모방하기보다, 그 양식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을 찾으려 했다. 정보, 금융, 언론, 법률, 국제기구, 심리, 테러, 범죄 네트워크 등의 비군사 영역이 그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분석] 다시 말해 초한전은 미국 RMA의 반대편에서 나온 비대칭적 상상력이다. RMA가 전장 안에서의 우세를 다룬다면, 초한전은 전장 바깥을 전략화함으로써 그 우세의 의미 자체를 상대화하려 한다.

3.2 세계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

[저자 주장] 저자들은 글로벌 금융, 인터넷, 국제법, 다국적 기업, 테러조직, 범죄조직,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국가안보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냉전형 국가 대 국가 전쟁관을 넘어서는 시각이었다.

[분석] 9·11 이전에 이러한 관점을 내놓았다는 점은 분명 선구적이었다. 다만 훗날 초한전이 “9·11을 예언했다”는 식으로 소비되는 것은 과장이다. 책은 테러리즘과 비국가 행위자의 활용 가능성을 논했지만, 특정 사건을 예견한

예언서가 아니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4][6][8][10][24]

4. 차오량과 왕상수이

[사실] 차오량(喬良)은 중국 공군 출신 전략저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왕상수이(王湘穗)는 PLA 계열 장교·연구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현역 장교 신분에서 세계화 시대 전쟁 양식의 변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책으로 정리했다.[1][2]

[분석] 두 저자는 중국 군 내부 담론의 일부를 대표하지만, 그 자체로 공식 교리를 대변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 후반 PLA 내부의 폭넓은 사상적 실험과 전략적 불안, 미국식 군사혁신에 대한 대응 모색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6][8]

[분석] 따라서 이들의 중요성은 “국가의 비밀 청사진 작성자”이기보다, 중국 전략담론이 어떤 질문을 제기했는지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데 있다. 서방에서 이들을 일종의 총괄 설계자로 묘사하는 경향은 책의 권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효과를 낳았다.

차오량과 왕상수이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그들은 세계화가 전쟁의 정의를 흔들고 있다고 봤다. 둘째, 강대국의 기술적 우위를 정면충돌이 아닌 우회적 결합으로 상대하려 했다. 셋째, 후대 중국 전략개념과의 관계는 “직접 지휘선”이 아니라 “문제의식의 중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6][8][9][25]

5. 핵심 전략논리

초한전의 핵심 구조: 경계의 초월 + 수단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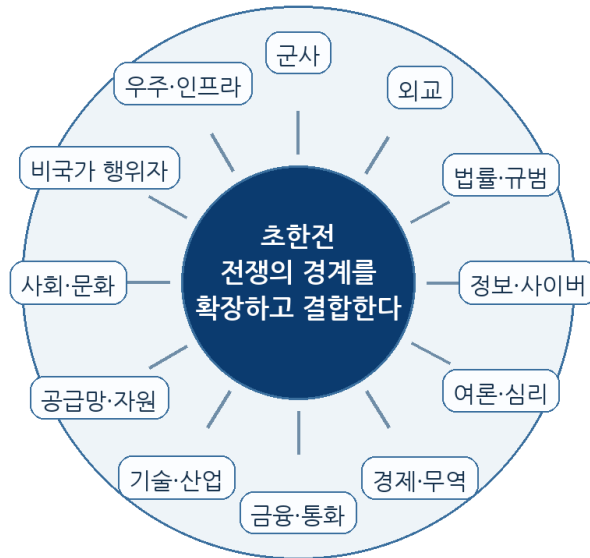


도표 2. 초한전의 핵심 구조

[저자 주장] 초한전의 첫 번째 핵심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 약화다. 저자들은 공식 전쟁선포나 대규모 군사충돌이 없어도 국가가 상대의 정책결정과 사회적 안정, 경제적 기초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쟁은 더 이상 전쟁터에서만 시작되지 않으며, 평시의 경쟁 속에서 이미 축적된다.

[저자 주장] 두 번째 핵심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구분 약화다. 외교, 금융, 법률, 언론, 인터넷, 기술, 무역, 자원, 범죄 네트워크가 모두 전략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결정적 효과는 단일 수단이 아니라 결합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명제다.

[저자 주장] 세 번째 핵심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경계 약화다. 저자들은 테러리스트, 범죄조직, 기업, 언론, 개인 해커, 국제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국가 전략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전국가적 경쟁” 또는 “전체사회적 경쟁”에 가까운 인식이다.

[분석] 네 번째 핵심은 비대칭성이다. 강자는 전통적 군사영역에서 우월할 수 있지만, 그 우월성이 큰 만큼 복잡한 경제·금융·정보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초한전은 이 의존성 자체를 강자의 취약성으로 바꾸려는 사고방식이다. 즉 약자는 강자의 강점이 아닌 강점의 전제조건을 공격한다.

핵심 논리의 압축

- 전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 파괴보다 강압, 점령보다 영향력, 속전속결보다 누적적 마모가 중요해진다.
- 하나의 수단보다 여러 수단의 정교한 조합이 더 큰 효과를 낸다.
- 정면충돌보다 문턱 이하 행동과 법적·정치적 모호성이 중요하다.
- 전략의 목적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축소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굴복시키는 데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8][9][24][25]

6. 전쟁 영역의 확장

[저자 주장] 초한전에서 전장은 육·해·공·우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 금융, 법률, 언론, 인터넷, 외교, 사회, 문화, 환경, 인프라, 기술, 자원 등이 모두 전쟁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의된다.

[분석] 이것은 단순히 전장 목록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확대”보다 “기능의 전략화”다. 예컨대 금융은 군사력이 아니지만, 결제망 차단·자산동결·대출 제한을 통해 군사력 전환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플랫폼은 군대가 아니지만, 알고리즘과 광고시스템을 통해 여론과 인지를 조작할 수 있다. 법률은 폭력이 아니지만, 규범과 해석을 무기화하여 상대를 제약할 수 있다.

[분석] 따라서 초한전의 확대된 전장은 “모든 것이 전쟁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전쟁효과를 내는 거의 모든 수단은 분석 대상이 된다”는 전략적 경고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영역	대표 수단	예시 효과
전통적 군사영역	재래식 전력, 미사일, 해공군, 특수작전	억제, 강압, 물리적 파괴
정보·사이버	해킹, 정보수집, 디도스, 데이터 탈취	지휘혼선, 인프라 교란, 정보우세
인지·심리·여론	허위정보, 내러티브 조작, 밈·영상	신뢰 침식, 사회 분열, 의지 약화
법률·규범	국내법 제정, 국제법 해석, 소송, 규범 경쟁	정당성 확보, 상대의 행동 제약
경제·무역	관세, 비관세장벽, 수입금지, 투자제한	비용 상승, 공급망 재편
금융·통화	제재, 자산동결, 결제망 차단, 환율압박	자금조달 차단, 시장 불안, 정책 변경
기술·산업	수출통제, 표준경쟁, R&D; 제한	군사·산업 역량 저하
자원·에너지	희토류·가스·석유 통제, 해상수송	생산차질, 에너지 불안
사회·문화	유학생·diaspora, 통일전선, 문화콘텐츠	장기적 영향력과 내러티브 형성

이 절의 주요 출처: [1][3][4][5][11][17]

7.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의 결합

모든 수단의 결합: 초한전식 작동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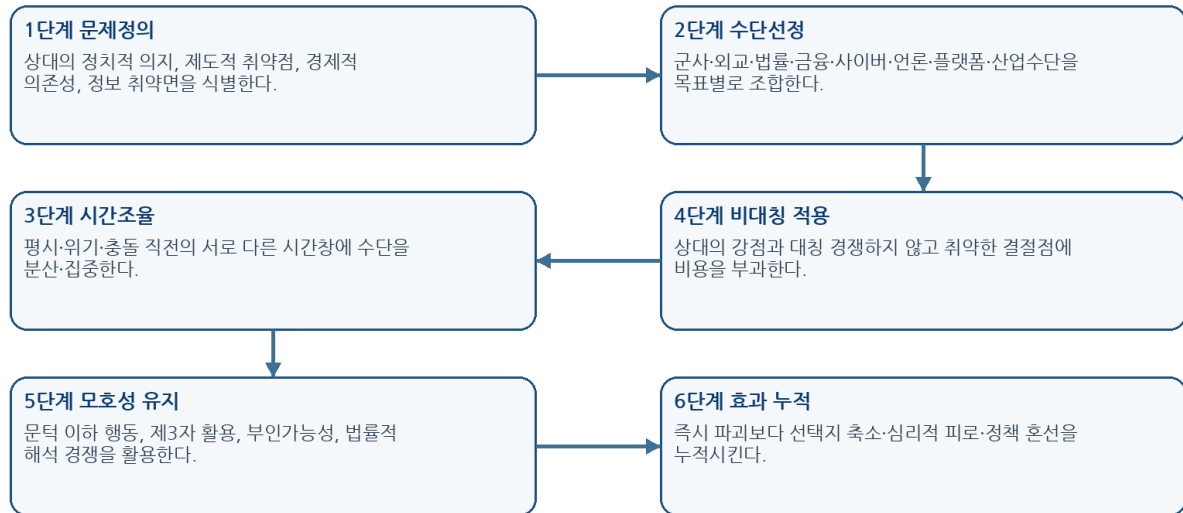


도표 3. 초한전식 “결합(combination)”의 작동 메커니즘

[저자 주장] 초한전은 각 수단을 분류하는 것보다 그 수단들을 어떻게 한 목표 아래 시간차를 두고 결합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군사시위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후에 언론전, 법률전, 금융 압박, 외교적 신호, 해상 민병대 활동, 사이버 침투가 결합될 수 있다.

[분석] 이 결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수평적 결합 — 서로 다른 영역의 수단을 동시 사용한다. 둘째, 수직적 결합 — 전략, 작전, 전술 수준을 연결한다. 셋째, 시간적 결합 — 평시, 위기, 충돌 직전, 충돌 이후의 단계를 나누어 압박을 누적한다.

[추론] 가상의 대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1)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공중 포위를 시연하고, (2)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해경과 민병선의 상시 존재를 늘리며, (3) 관세·검역·통관을 지렛대로 특정 산업을 압박하고, (4) 대만 국내 여론에 영향을 주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5)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법적·외교적으로 재강조하고, (6) 전력·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정찰을 강화할 수 있다. 이때 결정적 효과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만든 “정책 선택지 축소”다.

주요 수단 분류

분류	대표 예시
군사·준군사	재래식 군사력, 해경, 해상민병대, 미사일시위, 봉쇄훈련
정보·심리	허위정보, 심리전, 공개·비공개 선전, 위협 메시지
사이버·전자	APT, 공급망 침투, 디도스, 통신교란, 전자전
외교·정치	외교고립, 국제기구 압박, 동맹 쪼개기
법률·규범	법률전, 규범 형성, 역사·영유권 담론
경제·금융	제재, 수출통제, 통화·자본시장 압력, 대출·보험 제한
기술·산업	반도체 통제, 표준전쟁, 연구협력 제한
비국가 행위자	해커, 기업, 범죄조직, 프런트 단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각주 3. Qiao & Wang, FBIS translation, PDF pp.146-147: military / trans-military / non-military typology and cross-category combinations.

이 절의 주요 출처: [1][8][10][11][13][14]

8. 경제전·금융전

경제전·금융전의 전략체계



도표 4. 현대 국가전략에서 경제전·금융전의 체계

[저자 주장] 《超限戰》이 오늘날 특히 자주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전보다 금융전·경제전을 일찍부터 전략수단으로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주식시장, 환율, 자본 이동, 무역, 경제제재, 국제금융의 변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를 군사행동 못지않게 중시했다.[1]

[분석] 2020년대의 현실은 이 직관을 훨씬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달러와 금융제재, 수출통제, 투자심사, 첨단기술 규제를 통해 상대국의 군사·산업 역량 전환능력을 억제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핵심광물, 공급망, 제조생태계, 대출과 인프라 자금, 희토류·갈륨·게르마늄·흑연과 같은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양측 모두 “경제는 안보와 분리된 영역”이라는 전통적 자유주의 가정을 약화시키고 있다.[5][12][17][21][22]

8.1 국제금융시스템, 달러, SWIFT

[사실] 국제금융은 은행 네트워크, 달러 결제, correspondent banking, SWIFT 메시징, 국채시장, 외환시장, 보험·재보험, 청산결제 시스템이 얹힌 구조다. 이 중 핵심 결절점이 통제되면 상대는 거래와 자금조달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18][19][20]

[분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SWIFT 자체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네트워크 효과다. 제재받은 국가가 SWIFT에서 배제되거나 금융기관이 2차 제재 위험 때문에 거래를 끊으면, 단순 결제 불편을 넘어 무역금융, 환전, 보험, 투자유치 전반이 흔들린다. 이런 점에서 금융은 현대전의 “비살상 전략무기”에 가깝다.

8.2 제재, 자산동결, 수출통제

[사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사례에서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은행 제재, 첨단기술 수출통제, 보험·해운 제한, 개인 제재를 결합했다. 대중 전략경쟁에서도 미국의 반도체·첨단컴퓨팅 수출통제는 중국의 AI, 슈퍼컴퓨팅,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설계되었다.[12][21]

[분석] 초한전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군사행동 없이도 상대의 미래 군사력 형성을 저지하는 조치다. 전쟁터의 전차를 파괴하지 않고, 전차를 만드는 산업과 칩, 자금, 장비의 연결망을 제약하는 방식이다.

8.3 공급망·핵심광물·중국의 대응

[사실] 중국은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자 통제, 2024년 미국 향 이중용도 물자 규제 강화, 2025년 일부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등 핵심 소재를 전략카드로 활용해 왔다.[22]

[분석] 이것은 초한전의 직접 실행이라기보다, 상호의존성을 전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초한전적 발상과 유사하다. 공급망 경쟁은 군사력 경쟁의 후방을 겨냥한다. 어느 국가가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했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부품·장비·소재·선적·보험·결제를 통제하는가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8.4 경제전·금융전이 주는 시사점

- 경제전·금융전은 물리적 파괴 없이도 군사력 전환능력과 정책 선택지를 약화시킨다.
- 경제적 상호의존은 평화의 기반일 수도 있지만, 강압의 채널이 되기도 한다.
- 반도체, 핵심광물, 해운, 보험, 결제망은 현대 국가경쟁의 “전략 지형”이다.
- 초한전은 이러한 영역을 가장 일찍 묶어 본 중국어 전략담론 중 하나였다.

각주 4. Qiao & Wang, FBIS translation, PDF pp.50-51 on financial warfare; pp.146-147 on combining financial, regulatory, psychological, and media warfare.

각주 5.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Oct. 7, 2022 advanced-computing and semiconductor controls; subsequent updates 2023-2025.

각주 6. PRC MOFCOM/GAC export-control notices on gallium, germanium, graphite and selected dual-use/rare-earth items, 2023-2025.

이 절의 주요 출처: [1][5][12][17][18][19][20][21][22][23]

9.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의 연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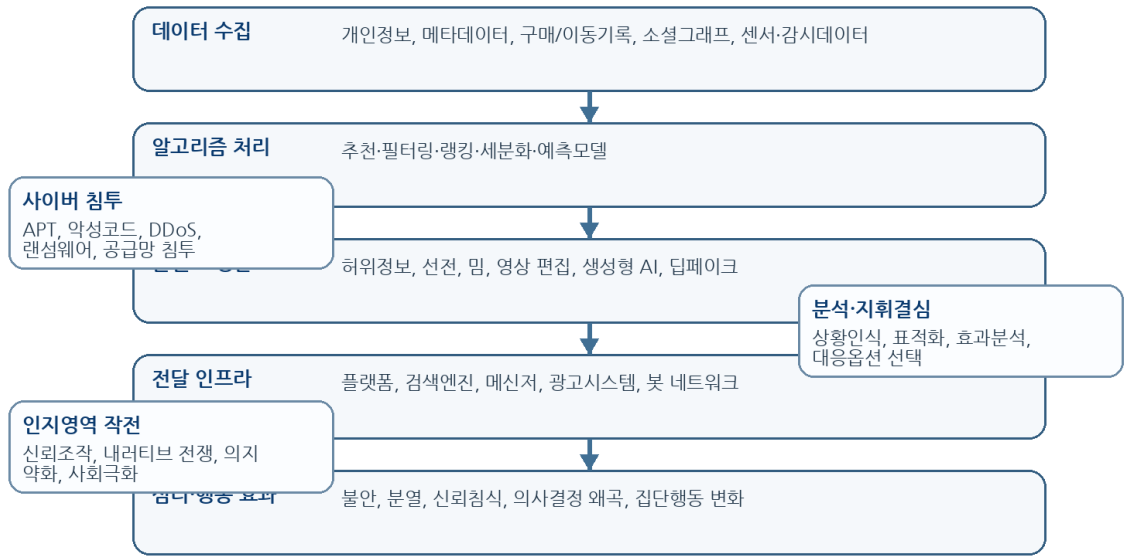


도표 5.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인지효과의 연쇄



생성 이미지 1.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의 현대적 전장

[사실] 오늘날 정보전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플랫폼 배포, 여론미세조정, 사이버경찰, AI 생성콘텐츠, 딥페이크, 자동화된 증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복합 생태계다. 사이버전은 정보절취·시스템교란·공급망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인지전은 그러한 정보흐름이 인간의 인식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주목한다.[5][7][10][11]

[분석] 초한전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지점은 명확하다. 첫째, 물리적 파괴 없이도 큰 전략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국가와 민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통신사, 검색엔진, 위성망, 보안기업이 전략생태계의 일부가 된다. 셋째, 평시와 전시가 연속선상에 놓인다. 많은 정보전·사이버전 활동은 공식 전쟁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식 교리] 중국 공식 문서들은 정보화·지능화를 꾸준히 강조하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전쟁 양식을 바꾼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PRC 보고서는 중국이 정보우세, 사이버역량, 전자전, 심리전, 삼전, 인지영역 관련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5][7]

9.1 SNS·검색엔진·알고리즘의 전략화

[분석] 21세기의 핵심 변화는 정보전의 유통 인프라가 플랫폼화되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직접 신문과 라디오만 통제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플랫폼이 정보 노출의 질서를 재구성한다. 이 구조에서는 사실의 진위만큼이나 “무엇이 먼저 보이고, 무엇이 증폭되며, 무엇이 묻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 정보전은 메시지전이면서 동시에 순위전쟁, 가시성 전쟁, 참여유도 전쟁이 된다.

9.2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분석] 생성형 AI는 초한전의 “모든 수단의 결합”을 더욱 저비용·고속으로 만든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이 대량 생산되고 미세조정되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가 자동화될 수 있다. 이는 선전의 산업화를 뜻한다. 딥페이크는 지휘자의 음성을 위조해 혼란을 만들 수 있고, 위기상황에서 허위영상이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추론] 향후 정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가”보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계와 회복탄력성을 갖추는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주 7. U.S.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25, p.37 on whole-of-government pressure and cognitive-domain operations against Taiwan; pp.63-64 on MCF, intelligentized warfare, AI and information campaigns.

이 절의 주요 출처: [5][7][10][11][16]

10. 법률전·여론전·심리전



생성 이미지 2. 대만 주변 회색지대 압박의 복합 수단

[사실] 서방 분석에서는 중국의 삼전(三戰)을 여론전(public opinion warfare),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법률전(lawfare)으로 설명한다. 미 국방부와 여러 연구기관은 이 개념을 중국의 정치전·회색지대 전략 이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본다.[7][11][13][14]

[분석] 삼전과 초한전은 직접 동일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층위에서 겹친다. 첫째, 군사수단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정당성·인지·법적 프레임 자체를 전장으로 본다는 점이다. 초한전이 광범위한 전략철학이라면, 삼전은 그중 여론·심리·법률 측면을 제도화한 하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분석] 법률전은 법을 지키느냐 위반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역사·주권·영유권 서사가 더 정당하게 보이는지, 국제사회가 어느 해석을 수용하는지의 문제다.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법·국내법·행정집행 활용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여론전과 심리전은 상대 사회와 엘리트의 인식, 위기 지속 의지, 외부 지원 기대를 흔드는 데 초점을 둔다.

개념	핵심 목표	주요 수단	초한전과의 관계
여론전	국내외 정당성 형성, 담론 주도	언론, SNS, 외교 메시지, 내러티브	중첩 높음
심리전	의지 약화, 공포·혼란 조성	위협 신호, 군사시위, 허위정보	중첩 높음
법률전	행동의 합법성·정당성 확보	국내법, 국제법 해석, 소송, 제도 설계	중첩 높음

이 절의 주요 출처: [7][11][13][14][15]

11. 기존 군사이론과의 비교

비교 대상	공통점	차이점	초한전과의 관계 요약
손자 《손자병법》	기만, 간접접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발상	손자는 고전적 군사·정치철학, 초한전은 세계화·금융·인터넷까지 포함	손자의 현대적 확장판처럼 읽히지만 시대 조건이 다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본다는 점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충돌 중심, 초한전은 비군사수단의 전략화를 더 강조	정치성은 공유하나 전장 범위가 훨씬 넓음
마오의 인민전쟁	강자의 우위를 약자의 비대칭으로 상쇄	마오는 농촌·장기전·인민동원 중심, 초한전은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	비대칭 논리의 현대화
소련/러시아 정치전·정보전	정보·심리·정치수단 활용	초한전은 금융·무역·법률·시장까지 더 체계적으로 확장	부분적 선행 전통과 유사
RMA	기술이 전쟁형태를 바꾼다는 인식	RMA는 주로 미군의 군사혁신, 초한전은 그에 대한 비대칭 대응	반작용적 관계
Network-Centric Warfare	네트워크와 정보우세 중시	NCW는 군사 C4ISR 중심, 초한전은 민간 네트워크와 비군사영역 포함	부분 중첩
Hybrid Warfare	군사·비군사 수단 혼합	초한전이 더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느슨함	매우 유사하지만 동일개념은 아님
Gray-Zone Conflict	문턱 이하 강압	회색지대는 문턱성에 초점, 초한전은 영역의 총확장에 초점	중첩 높음
Political Warfare	정치목적을 위한 비군사 수단 사용	초한전은 경제·금융·사이버·군사까지 더 넓음	초한전의 부분집합에 가까움
Asymmetric Warfare	비대칭적 약점 공략	초한전은 비대칭을 다영역 결합으로 구체화	핵심 구성요소
Full-Spectrum Operations / MDO	다영역 통합	서방 개념은 주로 군사작전 설계, 초한전은 비군사수단을 훨씬 넓게 포함	군사영역 바깥 범위에서 차이

요약하면 초한전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고전적 전략사상의 간접접근·비대칭성·정치성에 세계화·금융·네트워크·비국가 행위자라는 1990년대 후반의 변수를 급진적으로 접목한 개념이다. 독창성은 “모든 것이 새롭다”는 데 있지 않고, 기존의 여러 통찰을 하나의 과격한 언어로 재배열했다는 데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6][9][24][25]

12. 현대 중국 군사전략과의 관계

《超限戰》와 현대 중국 전략개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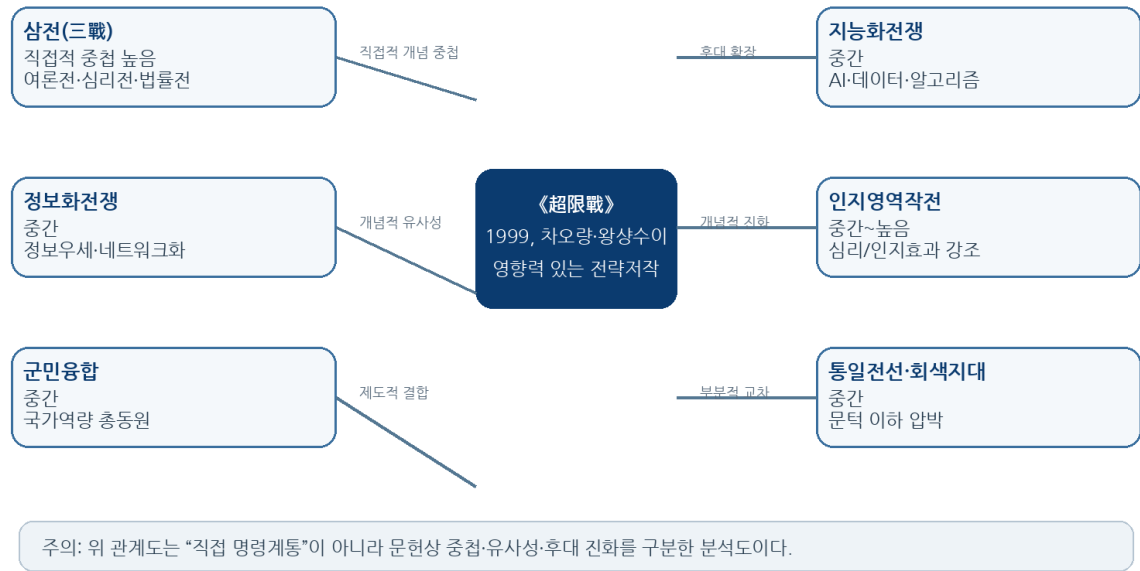


도표 6. 《超限戰》와 현대 중국 전략개념의 관계도

[공식 교리] 중국의 공개 공식문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개념은 적극방어, 정보화전쟁, 지능화전쟁, 군민융합, 삼전, 통합전략, 국방현대화, 전구작전, 해양강국, 우주·사이버 역량 강화 등이다.[3][4][5] “초한전”은 책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공식 백서의 전면적 표제 개념은 아니다.

[분석] 그렇다고 초한전을 현대 중국 전략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삼전은 여론·심리·법률 차원에서 강한 직접 중첩을 보인다. 정보화·지능화전쟁은 정보우세와 네트워크, AI,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다. 군민융합은 국가 전체 역량을 안보경쟁에 동원한다는 점에서 초한전의 폭넓은 동원 논리와 연결된다. 통일전선공작과 회색지대 활동 역시 비군사적 압박과 문턱 이하 경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겹친다.

[분석] 그러나 “겹친다”와 “직접 계승했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문헌상 확실한 인과선을 증명하기 어렵고, 현대 중국 전략의 상당 부분은 자체적인 군 현대화, 미국의 압력 대응, 기술발전, 지역분쟁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개념	중국 공식성	초한전과의 관련성	평가
삼전(三戰)	높음	높음	가장 명확한 중첩
군민융합	높음	중간	국가역량 총동원 측면 유사
정보화전쟁	높음	중간	정보우세 중시
지능화전쟁	높음	중간	AI·데이터 차원에서 후대 확장
인지영역작전	중간(공개 자료 제한)	중간~높음	심리·인지 효과의 심화
경제적 국가수단	높음	중간	초한전보다 더 넓은 보편적 국가행동
일대일로	높음	낮음~중간	모든 BRI 활동을 초한전으로 볼 수 없음
통일전선공작	높음	중간	비군사적 영향력 경쟁 측면에서 부분 교차

개념	중국 공식성	초한전과의 관련성	평가
대만 압박 전략	높음	높음	군사·외교·법률·경제·심리 결합이 뚜렷

각주 8. PRC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China's Military Strategy (2015) and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2019) are treated here as official sources distinct from the authors' 1999 book.

각주 9. U.S. DoD 2025 CMPR, pp.63-64: MCF, intelligentized warfare, AI, big data and military applications.

이 절의 주요 출처: [3][4][5][7][11][17]

13. 미중 전략경쟁과 초한전

[분석] 미중 전략경쟁은 초한전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금융·기술·산업·해양·법률·정보·외교가 동시에 얽힌 장기 경쟁이다. 미국은 동맹망, 달러 체제, 금융제재, 기술·투자 규제, 수출통제, 글로벌 규범 형성 능력을 지렛대로 삼는다. 중국은 제조역량, 내수시장, 핵심광물, 공급망, 인프라 투자, 해양 실력행사, 통일전선,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영향력, 군민융합을 동원한다.

[분석] 이런 점에서 미중 경쟁은 양측 모두가 부분적으로 초한전적 발상—즉 군사력 이외의 수단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을 실천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중국만 초한전을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현실을 놓친다. 현대 전략경쟁은 상호적이다.

[분석] 특히 반도체, AI, 첨단제조,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클라우드, 결제망, 표준설정, 대학·연구협력 규제는 21세기의 핵심 경쟁지형이다. 이는 고전적 군사사상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초한전은 이 복합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5][7][12][17][21][23]

14. 실제 사례 분석

현대 사례의 “초한전적 유사성” 평가

	0 낮음	군사+비군사 결합	문턱 이하 압박	경제적 강압	정보/인지	비대칭성	총평
미중 전략경쟁	1 제한적	3	2	3	2	3	높음
대만해협	2 중간	3	3	2	3	3	높음
남중국해	3 높음	3	3	1	2	2	높음
미중 무역전쟁		1	2	3	1	2	중간
반도체 수출통제		1	2	3	1	3	중간~높음
금융제재		1	2	3	1	3	중간~높음
공급망 경쟁		1	2	3	1	2	중간
사이버 공격		1	2	1	3	3	중간~높음
허위정보·정보조작		0	2	1	3	2	중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		3	3	2	3	2	중간
민간기업·플랫폼·위성		2	2	2	2	2	중간

도표 7. 현대 사례의 초한전적 유사성 평가

사례	관련성	이유
미중 전략경쟁	높음	다영역 경쟁, 경제·기술·군사·외교가 모두 얹힘
대만해협	높음	군사시위, 심리전, 법률전, 외교고립, 경제압박이 결합
남중국해	높음	해경·민병대·법률전·기정사실화·외교전이 복합
미중 무역전쟁	중간	경제전 성격은 강하지만 군사와 직접 결합된 정도는 제한적
반도체·첨단기술 수출통제	중간~높음	군사력 전환능력 억제를 위한 기술·산업 전략
금융제재	중간~높음	군사행동 없이 상대의 전략역량을 약화시키는 대표 수단
공급망 경쟁	중간	전략성은 크지만 전쟁적 범주로 볼지에는 논쟁
사이버 공격	중간~높음	문턱 이하·모호성·비대칭성에서 초한전적
허위정보·정보조작	중간	인지전 요소가 강하지만 단독으로는 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하이브리드 전략	중간	유사성은 크지만 중국 초한전의 직접 적용은 아님
민간기업·플랫폼·위성·통 신망	중간	국가와 민간의 경계 흐림을 잘 보여주는 현대적 현상

14.1 대만해협

[분석] 대만은 초한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사례다. 해·공군 훈련, 해상포위 시위,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법적 내려티브, 선거기 개입 의혹, 허위정보, 통일전선, 해경·민병대 활동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표는 전면전 개시 이전에 대만의 선택지와 외부 지원 기대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14.2 남중국해

[분석] 남중국해는 회색지대 활동과 법률전, 준군사 수단, 기정사실화 전략이 결합된 대표 사례다. 해경과 민병대, 인공섬, 행정관할, 역사권리 서사, 외교 메시지가 함께 움직인다.

14.3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분석]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에너지 강압, 정보전, 사이버작전은 초한전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지만, 중국 책의 직접적 실행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초한전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프레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절의 주요 출처: [5][7][11][13][14][18][21]

15. 서방의 해석과 오해

[사실] 미국과 서방은 초한전을 여러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와 국방 교육기관, NDU, CNA, RAND, CSIS, CASI 등은 초한전을 중국 전략담론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다뤄 왔다. 그러나 그 평가의 강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일부는 중국의 광범위한 정치전·회색지대 활동을 읽는 유용한 키워드로 보았고, 일부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경계했다.[6][7][8][9][15]

[분석] 서방 수용 과정의 대표적 왜곡은 두 가지다. 첫째, 번역 왜곡이다. Unrestricted Warfare는 “제한 없는 전쟁”이라는 감각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원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쟁”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무법적인 뉘앙스를 부여한다. 둘째, 정치적 프레임이다. 영어권에서는 “China’s master plan to destroy America”와 같은 선정적 제목이 널리 유통되면서, 책이 마치 중국의 국가적 음모 설계도인 것처럼 소비되었다. 이는 책의 성격을 왜곡한다.[8][15]

[분석] RAND와 CNA 계열 연구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편이다. 비공식 장교 저작과 공식 교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경고를 지속해 왔다. CASI 역시 “초한전은 중국의 마스터플랜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반면 일부 정책담론에서는 초한전이 중국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만능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6][7][8][9][15]

16. 주요 비판과 한계

[비판 1] 개념이 지나치게 넓다. 초한전은 거의 모든 국제경쟁 수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력의 대가로 엄밀성을 희생한다. 모든 것이 전쟁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전쟁이 아닐 수 있다.

[비판 2] 전쟁과 평화의 구분을 약화시킨다. 전략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법적·정치적 측면에서는 평시 경쟁과 전시 행동의 문턱을 흐리게 만든다.

[비판 3] 새로움이 과장되었다. 손자, 클라우제비츠의 정치성, 냉전기 정치전, 소련·러시아 정보전, 경제제재 전통 등과 비교하면 초한전의 많은 요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비판 4] 중국의 실제 공식전략보다 서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부여받았을 수 있다. 즉 중국 내부보다 미국 내부에서 더 유명해진 중국 전략저작이라는 역설이 존재한다.

[비판 5] 만능이론 남용의 위험이 크다. 중국의 상업 활동, 외교 활동, 일대일로, 유학생 활동까지 전부 초한전으로 해석하면 분석이 음모론으로 기운다.

이 한계들은 초한전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위를 통제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바람직한 사용법은 “이 사례가 초한전과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유사한가?”를 묻는 것이지, “이 사례가 초한전의 직접 실행인가?”를 자동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8][15][24][25]

17. 21세기 초한전의 진화

[분석] 1999년에는 금융·무역·인터넷·비국가 행위자의 전략성을 미리 묶어 본 것만으로도 선구적이었다. 2020년대에는 그 영역이 더 넓어졌다. AI와 데이터, 반도체, 공급망, 우주기반 서비스, 해저케이블, 민간 위성망,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거버넌스, 디지털 통화, 바이오, 핵심광물이 모두 전략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

[분석] 미래의 초한전적 사고는 세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AI-가속형 초한전 — 표적분석, 심리조작, 메시지 생산, 사이버 자동화가 결합하는 방향. 둘째, 금융-기술 융합형 초한전 — 결제망, 디지털통화, 자본시장, 첨단기술 통제가 하나의 경쟁체계로 묶이는 방향. 셋째, 민군·관민 경계 해체형 초한전 — 기업, 대학, 연구소, 플랫폼, 물류망, 위성서비스가 전략생태계의 핵심 요소가 되는 방향이다.

[추론] 특히 AI와 인지전의 결합은 초한전의 현대판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선전의 병목이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병목이 검증과 신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쟁의 승부는 메시지 생산량보다 사회의 복원력, 인증 인프라,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에서 갈릴 수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5][7][12][16][21][22]

18. 종합 평가 및 결론

초한전의 핵심 개념 10가지
1. 전쟁/평화 경계의 흐려짐
2. 군사/비군사 수단의 결합
3. 국가/비국가 행위자 경계 약화
4. 전장의 다영역 확장
5. 비대칭성
6. 문턱 이하 강압
7. 법률·여론·심리 차원의 전략화
8. 경제·금융·기술의 무기화
9. 네트워크·데이터·플랫폼의 중요성
10. 누적적 효과와 선택지 축소

18.1 가장 중요한 명제 10가지

-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 파괴만을 뜻하지 않는다.
- 강자는 전장 안에서 강하지만, 약자는 전장 밖에서 강자의 의존성을 공격할 수 있다.
- 비군사적 수단은 군사수단만큼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다.
- 모든 수단의 결합이 단일 수단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낳는다.
- 법률, 언론, 금융, 네트워크, 기술은 모두 현대 전략경쟁의 전장이다.
- 전쟁과 평화는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 국가와 민간, 정규군과 비정규 행위자의 경계는 흐려진다.
- 승리는 상대의 완전한 파괴보다 선택지 축소와 의지 약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초한전은 1999년에 선구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 일반화되었다.
- 그러나 초한전은 만능이론이 아니며, 공식 중국교리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18.2 전략적 혁신성과 한계

혁신성: 1999년 시점에 금융, 무역, 법률, 미디어, 비국가 행위자를 하나의 전략프레임에 넣은 점은 분명 선구적이었다. 특히 경제전·금융전의 전략성을 조기에 부각한 점은 오늘날 재평가할 가치가 크다.

한계: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존 이론과의 중복이 많으며, 중국의 공식전략보다 서방 담론에서 과도한 상징성을 획득했다. 이 때문에 설명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예측도구나 단일 원인설명으로는 취약하다.

18.3 한 문장 정의

초한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국가가 군사력뿐 아니라 금융·정보·법률·기술·사회적 영향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결합하여,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린 환경에서 상대의 선택지와 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5][8][15][25]

19. 핵심 개념·용어 사전

용어	설명
초한전(超限戰)	전통적 군사영역을 넘어서는 수단의 결합과 전장 확장을 강조하는 전략개념
삼전(三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총칭
회색지대(Gray Zone)	전면전 문턱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강압 활동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군사·비군사, 정규·비정규 수단을 혼합하는 전쟁 양식
정치전(Political Warfare)	정치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 밖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쟁
경제전(Economic Warfare)	무역, 투자, 산업, 자원을 전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쟁
금융전(Financial Warfare)	제재, 자산동결, 결제망, 달러체제 등을 활용한 전략압박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정보의 수집·통제·왜곡·유통을 둘러싼 경쟁
사이버전(Cyber Warfare)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투·교란·파괴
인지전(Cognitive Warfare)	상대의 인식, 신뢰, 판단,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경쟁
군민융합(MCF)	민간과 군사의 기술·산업·인재 자원을 통합하려는 국가전략
정보화전쟁	정보우세, 네트워크화, 정밀타격을 중시하는 현대 중국 군사개념
지능화전쟁	AI, 자율체계, 빅데이터가 전쟁양식을 바꾼다는 개념
법률전(Lawfare)	법과 규범의 해석·적용 자체를 전략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통일전선공작	비군사적 영향력 구축과 정치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중국의 장기 활동

20. 참고문헌 및 주요 1차 자료

- [1] 喬良(Qiao Liang), 王湘穗(Wang Xiangsui). 《超限戰：對全球化時代戰爭與戰法的想定》. 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 1999. FBIS English trans.: <https://www.c4i.org/unrestricted.pdf>. Key refs: Preface original pp.1-5; Ch.7 original pp.195-222; FBIS PDF pp.50-51, 146-147, 179-199.
- [2] CiNii Books / WorldCat bibliographic records for 1999 edition of 《超限戰》.
- [3]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China's Military Strategy. 27 May 2015. Official English text: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5/05/27/content_281475115610833.htm.
- [4]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24 July 2019. Official English text: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paper/201907/24/content_WS5d3941ddc6d08408f502283d.html.
- [5]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23 Dec. 2025. Key refs: p.37 (Taiwan whole-of-government/cognitive pressure), pp.63-64 (MCF, intelligentized warfare, AI). Official PDF: <https://media.defense.gov/2025/Dec/23/2003849070/-1/-1/1/ANNUAL-REPORT-TO-CONGRESS-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2025.PDF>.
- [6] James Mulvenon and David M. Finkelstein, eds. China's Revolution in Doctrinal Affairs: Emerging Trends in the Operational Art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CNA, 2005.
- [7]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 2024.
- [8] Josh Baughman. "Unrestricted Warfare Is Not China's Master Plan."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5 Apr. 2022.
- [9] Fumio Ota. "Sun Tzu in Contemporary Chinese Strategy." Joint Force Quarterly 73, 2nd Quarter 2014.
- [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formation Warfare: Issues for Congress, R45142. 2018.
- [11] Mark Stokes and Russell Hsia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Political Warfa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roject 2049 Institute, 2013.
- [12]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Press releases and public guidance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xport controls to the PRC, Oct. 2022; Oct. 2023; Apr. 2024; Dec. 2024; Jan. 2025.
- [13] CSIS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Selected analyses on South China Sea gray-zone activities and legal warfare.
- [14] CNA. Selected studies on Chinese maritime strategy, gray-zone operations, and escalation management.
- [15]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CASI; and other U.S.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analyses cautioning against equating 《超限戰》 with official PRC doctrine.
- [16] CNA.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arious issues; related PLA writings on intelligentized warfare.
- [17]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Key Pillar of the Global Community of Shared Future. Oct. 2023.
- [18] SWIFT. Public material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messaging restrictions, including Russia and Iran cases.
- [1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ecisions of 2 March 2022 and related measures restricting access of certain Russian banks to SWIFT.
- [2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PO Task Force; public materials on Russian sovereign assets and sanctions enforcement, 2023-2024.
- [21]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 Oct. 2022; related updates 2023-2025.
- [22]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RC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llium, germanium, graphite, rare-earth and dual-use export control announcements, 2023-2025.
- [23] CSIS. Selected analyses on economic warfare, semiconductors, and supply-chain statecraft.
- [24] Army University Press / Military Review. "Précis: Unrestricted Warfare," 2019.
- [25] Nan Li. "Unrestricted Warfare and Chinese Military Strategy." RSIS/IDSS commentary or working paper, 2002.
- [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aitlin Campbell, China Primer: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IF11719, updated 4 Sept. 2025; and CRS Report R46808, China's Militar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자료 해석에 대한 최종 주의: 본 보고서는 직접 확인 가능한 공식문서와 널리 인용되는 학술·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터넷상에서 반복되는 과장된 주장—예컨대 《초한전》이 현대 중국의 모든 활동을 단일하게 설명한다는 주장—은 채택하지 않았다. 문헌상 직접 증거와 분석적 유사성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끝.

부록 A. 《超限戰》의 전쟁 방식 목록: 분석적 재구성

주의: 아래 목록은 1999년 원전과 후대 영어권 요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전쟁 형태를 분석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번역본과 요약본 사이에는 용어 차이가 있으며, 동일 항목이 약간 다른 이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은 “원문의 절대적 정본 표”가 아니라, 책이 상정한 전쟁수단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용 분류표다.

범주	전쟁 형태(재구성)	간단 설명
군사·물리	핵전	핵억제와 핵공갈, 극단적 전략수단
군사·물리	재래식 전쟁	전통적 육해공 전력 사용
군사·물리	생물·화학전	대량피해 또는 공포 조성 수단
군사·물리	생태/환경전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통한 압박
군사·물리	우주전	위성·우주자산 경쟁과 교란
군사·물리	전자전	전파·센서·통신 교란
비정규	게릴라전	약자의 장기적 소모전
비정규	테러전	공포와 정치적 충격 창출
정보·인지	네트워크전	해킹, 침투, 시스템 교란
정보·인지	정보/첩보전	감시, 침투, 정보수집
정보·인지	심리전	공포, 신뢰붕괴, 의지 약화
정보·인지	미디어전	언론·방송·플랫폼을 통한 프레이밍
정보·인지	문화·이데올로기전	가치·정체성·내러티브 경쟁
경제·금융	무역전	관세, 비관세장벽, 시장차단
경제·금융	금융전	시장교란, 자금조달 차단, 제재
경제·금융	통화전	환율, 통화가치, 준비통화 체계 활용
경제·금융	자원전	희소자원·에너지·광물 통제
경제·금융	경제원조전	차관·원조·투자 유인을 통한 영향력
경제·금융	제재전	법규·금수·수출통제 등 규제수단
법률·정치	외교전	동맹·국제기구·협상 활용
법률·정치	법률전	국내법·국제법 해석과 제도 경쟁
사회·암시장	밀수전	비합법 유통망 활용
사회·암시장	마약전	사회적 해악과 범죄경제 활용
사회·암시장	조작/사기전	허위정보, 금융조작, 위조, 기만
사회·암시장	기술전	기술탈취, 표준경쟁, R&D; 우위 경쟁

이 표가 시사하는 핵심은 목록 그 자체보다 분류 경계의 파괴다. 저자들은 전쟁수단을 군사 분야에 묶어 두지 않고,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거의 모든 수단을 전쟁의 연장선에 올려놓았다. 오늘날 이 목록은 그대로보다 재구성되어 읽히는 편이 유용하다. 예컨대 1999년에는 없었던 AI·클라우드·플랫폼·반도체 통제는 “기술전”, “정보전”, “금융전”, “심리전”의 교차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8][24][25]

부록 B. 정책적 함의와 대응 원칙

[분석] 초한전이 실제 정책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위협을 군사부처만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공급망, 항만, 해저케이블, 위성망, 플랫폼, 대학과 연구생태계, 표준설정 체계, 공중보건과 바이오, 지방정부와 민간기업까지 국가안보의 일부로 재인식해야 한다.

[분석] 그러나 대응 또한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적대행위로 해석하면 개방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다. 따라서 대응은 표적화되고, 증거 기반이어야 하며, 법치·동맹·시장신뢰를 함께 지켜야 한다.

대응 원칙	구체 내용
1. 경보체계 통합	군, 정보기관, 금융감독, 산업부문, 통신·에너지 인프라 사이의 상황인식 공유
2. 공급망 회복탄력성	핵심광물,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해운·보험망의 다변화
3. 금융방어	제재회피 탐지, 자금세탁 방지, 결제망 백업, 중앙은행·재무당국 협조
4. 사이버 방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국가기반시설 모의훈련, 사고복구 능력
5. 인지·정보 회복력	미디어 리터러시, 사실검증, 공공 커뮤니케이션, 딥페이크 인증 체계
6. 법률 준비태세	국내법 정비, 국제법 논증, 소송·중재·제재의 합법성 확보
7. 동맹·파트너 연계	단독 대응보다 연합 대응이 회색지대 압박에 효과적
8. 민간협력	플랫폼, 클라우드, 위성, 물류, 금융기관과의 실질적 협조
9. 비례성 원칙	과잉반응을 피하고 법적 정당성을 유지
10. 서사 경쟁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목적·사실·정당성을 분명히 설명

요컨대 초한전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모든 것을 전쟁으로 보는 편집증”이 아니라, 다영역 회복탄력성을 갖춘 개방국가 모델이다. 경제와 사회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개방성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 동맹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 절의 주요 출처: [5][7][12][18][21][23]

부록 C. 원전·공식교리·현대사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질문	예/아니오 판단 포인트
이 주장은 1999년 원전에 직접 존재하는가?	원전 또는 검증된 번역본에서 확인 가능한가
이 개념이 중국 공식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국방백서, 공식 전략문서, 정부 발표에 나타나는가
이 사례는 초한전의 직접 실행인가, 구조적 유사성인가?	명시적 인과증거와 단순 유사성을 구분했는가
정책담론의 과장이 개입되지는 않았는가?	선정적 번역이나 언론 프레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는가
경제활동 전체를 적대행위로 과잉 해석하지 않았는가?	증거·의도·지휘관계·효과를 구분했는가
대응전략이 개방성과 법치를 해치지 않는가?	과잉안보화의 부작용을 검토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경우에만 특정 사례를 “초한전적”이라고 신중하게 부를 수 있다. 연구와 정책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책의 문장을 현재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이다. 엄밀한 비교는 텍스트, 공식교리, 조직, 행동, 결과를 분리해서 본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4][5][8][15]

부록 D. 주요 1차 자료 해설

이 부록은 본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1차 자료가 각각 무엇을 말해 주는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안내서다. 엄밀한 연구에서는 원문·공식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특히 중국어 자료와 영어 번역본 사이의 어감 차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 1) 《超限戰》(1999) — 초한전의 원문 텍스트로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전쟁관의 확대, 수단의 결합, 비대칭 사고를 보여 주지만, 국가의 공식작전교범은 아니다.
- 2) 《China's Military Strategy》(2015) — 중국의 공식 군사전략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백서다. 정보화 국지전, 적극방어, 해양·우주·사이버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다.
- 3)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2019) — 지능화, 군민융합, 장기 군현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4) DoD PRC Reports (2024/2025) —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 삼전, 군구조, 사이버·우주 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체계적 평가를 제공한다.
- 5) BIS Export Control Materials — 반도체·첨단컴퓨팅 통제가 어떻게 전략수단화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 6) MOFCOM / GAC Export Control Announcements — 중국이 핵심광물과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 7) SWIFT / EU / Treasury Materials — 국제금융 네트워크, 제재, 자산동결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실증 자료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4][5][7][12][18][21][22]

부록 E. 후속 연구 질문

- 1. 초한전의 언어는 1990년대 말 중국 군 내부의 어떤 논쟁을 반영하는가?
- 2. 초한전과 삼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문헌상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가?
- 3. 중국의 정보화전쟁·지능화전쟁 논의는 초한전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 4. 반도체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통제를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법적·정치적 기준은 무엇인가?
- 5. 플랫폼·클라우드·위성기업의 전략화는 기존 국제법 체계에 어떤 공백을 만들고 있는가?
- 6. 인지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가?
- 7. 경제안보 담론이 과잉안보화로 흐를 때의 비용은 무엇인가?
- 8. 민주국가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초한전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9. 대만해협 위기에서 군사시위와 경제강압, 정보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 10. 남중국해에서 해경·민병대 활동과 법률전은 어떤 구조로 결합되는가?
- 11. 미국의 경제전·금융전 역시 초한전적 발상으로 읽힐 수 있는가?
- 12. 생성형 AI 확산은 허위정보 비용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 13. 국제금융 인프라의 분절화는 미래 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4. 공급망 복원력과 동맹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결합되어야 하는가?
- 15. “전쟁” 개념의 과잉확장을 막으면서도 복합위협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초한전을 “정답집”으로 읽기보다, 21세기 국가경쟁을 탐구하기 위한 문제제기 장치로 읽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연구는 책의 표현을 반복하는 연구가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 세계에서 어디까지 설명력을 가지는지 냉정하게 시험하는 연구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5][7][8][12][21][23]

부록 F. 원전 핵심 구절 정밀 독해

F.1 “전쟁이 다른 형태와 다른 무대로 다시 태어난다”

[저자 주장] 서문에서 저자들은 군사력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쟁이 더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사회에 재침투한다고 본다. 이 대목은 초한전을 “모든 것이 전쟁”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전쟁효과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인식으로 읽어야 한다.¹

1. Qiao & Wang, Unrestricted Warfare, FBIS translation, Preface, original pp.1-5; C4I PDF pp.6-7.

F.2 “군사/초군사/비군사”의 3분법

[저자 주장] 저자들이 제시한 유형표는 군사적 전쟁, 군사를 넘어서는(trans-military) 전쟁, 비군사적 전쟁을 나란히 배열한다. 네트워크전·정보전·심리전·외교전·금융전·무역전·자원전·규제전·제재전·미디어전·이데올로기전 등이 동일한 전략팔레트에 들어간다. 이는 초한전의 범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1차 자료다.²

2. Qiao & Wang, FBIS translation, PDF p.146 (viewer index p.145), warfare typology; see also p.147 for combination examples.

F.3 “결합은 먼저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이 방법이다”

[저자 주장] Chapter 7의 결론부에서 저자들은 “beyond”와 “combination”을 초한전의 핵심으로 정리한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초한전을 사이버전이나 금융전 하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³

3. Qiao & Wang, Chapter 7, original pp.195-222; C4I/FBIS PDF p.199.

[분석] 세 구절을 함께 읽으면 초한전의 가장 정확한 요약은 “금지 없는 폭력”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 환경에서 수단을 결합하는 전략사고”에 가깝다. 다만 원전은 규범과 금지의 초월을 도발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윤리적·법적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

부록 G. 서방 수용사와 번역 프레임

시기	주요 특징	대표적 해석
1999-2001	FBIS 번역과 미 군사·정보 커뮤니티의 초기 관심	중국이 미국의 기술우위를 비대칭적으로 우회하려는 전략사상으로 해석
9·11 이후	테러·비국가 행위자 논의가 크게 주목	책이 9·11을 “예언했다”는 과장된 사후해석이 확산
2005-2015	PLA 교리연구가 정교화	CNA·NDU 등은 비공식 저작과 공식교리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강조
2016-2021	하이브리드전·회색지대 개념과 결합	초한전이 중국의 정치전·영향력 작전을 설명하는 넓은 프레임으로 사용
2022-2026	미중 기술·경제 경쟁 격화	CASI 등은 “중국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과장에 경고하면서 분석적 유용성은 인정

[분석] 가장 큰 번역 프레임 문제는 Unrestricted Warfare라는 영어표현이 원문의 “超限”을 “무제한·무법”의 의미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실제 원전의 핵심에는 경계 초월과 영역 간 결합이 더 강하게 자리한다. 반대로 책 자체가 규칙·금지를 도발적으로 문제삼는 대목도 있으므로, “War Beyond Limits”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번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 G-1. James Mulvenon and David Finkelstein, eds., China’s Revolution in Doctrinal Affairs, CNA, 2005, on the problem of authoritativeness of officer writings.

각주 G-2. Josh Baughman, “Unrestricted Warfare Is Not China’s Master Plan,”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5 Apr. 2022.

이 절의 주요 출처: [6][8][9][15][24][25]

부록 H.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가

명제	평가	2020년대 기준 판단
금융과 경제가 전략전장의 핵심이 된다	적중	제재, SWIFT, 자산동결, 투자규제, 반도체·수출통제가 국가전략 중심수단이 됨
네트워크·사이버가 전쟁영역이 된다	적중	사이버첩보·인프라 공격·정보전이 상시 경쟁으로 일반화
국가/비국가 경계가 흐려진다	대체로 적중	플랫폼, 위성기업, 민간해커, 준군사조직의 역할 증가
군사적 우위는 비군사 수단으로 상쇄될 수 있다	부분 적중	비대칭 경쟁은 가능하지만 강대국의 군사력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님
전쟁/평화 구분이 소멸한다	과장	회색지대가 확대됐지만 국제법과 정치에서 무력공격·전쟁의 문턱은 여전히 중요
모든 국제경쟁을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오류 위험	분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설명력이 오히려 약해짐
중국의 모든 국가활동이 초한전의 실행이다	근거 부족	공식 문헌상 그런 포괄적 지휘·계승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AI·데이터·알고리즘이 전략경쟁을 가속한다	후대적 확장	1999년 책보다 2020년대에 훨씬 중요해진 영역

최종 판단: 초한전의 가장 큰 공헌은 미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1999년에 군사력 바깥의 경제·금융·정보·법률·비국가 네트워크가 국가 간 전략경쟁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방향을 선명하게 포착했다는 데 있다. 가장 큰 오류는 그 통찰을 지나치게 확장해 모든 경쟁을 전쟁의 언어로 포섭할 수 있게 만든 점이다.

이 절의 주요 출처: [1][3][5][8][15][21][22]